정보

개요
곡명: Piano Concerto No. 24 in C minor, K. 491
작곡가: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장르: 피아노 협주곡
작품 목록 기재: 빈, 1786년 3월 24일
초연: 정확한 날짜 ·장소 ·독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1786년 4월 7일 모차르트가 케른트너토어 극장 (Kärntnertortheater)에서 음악회를 열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만, K. 491이 그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편성: 독주 건반악기, 플루트 1,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2, 트럼펫 2, 팀파니, 현악기
소요 시간: 약 30분
범위: 자필 총보와 사후 초판의 전승, 세 악장의 설계, 속도 표기의 성격, 카덴차와 연결구를 둘러싼 현대 연주 선택을 다룬다.
IMSLP:

https://imslp.org/wiki/Piano_Concerto_No.24%2C_K.491_%28Mozart%2C_Wolfgang_Amadeus%29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iano_Concerto_No.24(Mozart)

모차르트의 Piano Concerto No. 24 in C minor, K. 491은 초연을 둘러싼 추정에 기대기보다 자필 총보와 전승 자료를 먼저 살펴야 하는 협주곡이다 . 1786년 3월 24일은 모차르트가 빈에서 자신의 작품 목록에 적어 둔 날짜이며, 현존 자필 총보에는 작곡 뒤에도 세 악장의 피아노 성부를 고쳐 나간 자국이 남아 있다. 초연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재료를 관현악이 먼저 말하고 피아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 또 연주자가 어느 지점에서 선택해야 하는지는 총보와 판본 기록을 살피면 비교적 또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초연 기록이 남긴 빈칸

1786년 4월 8일자 Wiener Zeitung은 전날 모차르트가 큰 음악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그 공연
장소는 흔히 반복된 부르크극장이 아니라 케른트너토어 극장이었다 . 그러나 신문에는 곡목이 실리지 않았고, K. 491의 제목도 나오지 않는다. 3월 24일이라는 작품 목록의 날짜 때문에 이 협주곡을 4월 7일 음악회의
유력한 후보로 보는 견해는 가능하지만 , 그 가능성은 프로그램 기록을 대신하지 못한다.

느린 악장을 앙코르했다는 이야기 역시 K. 491의 확정된 공연사로 쓰기 어렵다. 이 일화는 K. 482의 Andante 와 K. 491을 뒤섞은 후대 서술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 협주곡의 첫 연주 날짜, 당시 독주자, 사용 악기는 현재 남은 자료만으로 특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불확실성을 남겨 두는 일은 작품의 이력을 비워 두는 일이 아니라, 전해진 문서가 말하는 범위를 지키는 일이다.

총보가 전하는 수정의 순서

런던 Royal College of Music에 있는 자필 총보 ‘Ms 402’는 표제면이 없는 37장짜리 자료다. 모차르테움의 쾨헬 목록은 모차르트가 작곡을 마친 뒤 세 악장 모두에서 피아노 파트를 대폭 고쳤지만, 관현악 성부에는 그 수정이 모든 곳에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적는다. Henle의 비평 주석도 독주부, 특히 왼손이 몇 곳에서 개요처럼 적혀 있으며, 가늘고 뾰족한 펜으로 나중에 적은 수정이 앞선 형태와 나란히 남은 대목이 있음을 밝힌다.

이런 흔적 때문에 현대 비평판은 단순히 가장 이른 인쇄본을 복제하지 않는다. 자필의 후기 수정 상태를 중심에 두고, 이전 형태가 음악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에는 오시아(대안 표기)로 병기한다. 오늘날 보이는 한 음형이 유일하게 허용된 해답이라는 뜻은 아니다. 어느 시점의 필사본과 사후 인쇄본이 어떤 수정을 놓쳤는지까지 살핀 뒤, 판본이 본문과 대안을 구분한다는 뜻이다.

Constanze Mozart가 보관하던 자필 총보를 Johann Anton André가 취득한 뒤, 이 작품은 1800년 오펜바흐에서 여섯 곡의 피아노포르테 협주곡 Op. 82 가운데 제 3번으로 처음 인쇄되었다. 이 초판은 작품을 널리 전한 중요한 자료이지만, 모차르트 사후에 나온 파트보이므로 자필의 모든 후기 수정과 같은 권위를 갖지는 않는다. 자필 총보와 1800년 초판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악장이 만드는 세 가지 관계

악장	중심 조성	전개의 출발점	참고 시간
I. Allegro	다단조	관현악 제시 뒤 피아노가 홀로 새 선율을 꺼낸다.	약 13분
II. [Larghetto]	내림마장조	돌아오는 주제가 피아노 장식과 목관의 음색에 따라 다른 표정을 보인다.	약 7분
III. [Allegretto]	다단조	하나의 주제가 연속된 변주 속에서 리듬과 성부를 바꾼다.	약 9분

첫 악장은 관현악이 각진 윤곽의 재료를 제시한 뒤, 피아노가 반주 없이 들어와 관현악 제시부에 없던 선율을 말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독주자는 관현악의 내용을 단순히 되풀이하지 않는다. 독자적인 재료를 꺼내고, 관현악과 다시 만나며, 재현부에서는 앞서 들었던 재료의 순서도 바꾼다. 피아노의 첫 진입은 협주곡이 독주와 투티의 교대가 아니라 두 개의 제시가 서로를 보완하는 형식임을 드러낸다.

둘째 악장은 내림마장조의 중심 선율이 여러 차례 돌아오는 느린 악장이다. 어떤 해설은 이를 변형된 ABA로, 다른 해설은 론도로 부른다. 두 명칭은 반복되는 중심 주제와 대조 구간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 같은 선율이 돌아올 때 피아노의 장식과 목관의 배치가 달라진다는 점이 악장의 실제 진행을 보여 준다. 이 악장에서는 트럼펫과 팀파니가 쉬므로, 현과 목관, 피아노가 만드는 음색의 차이가 한층 분명하게 드러난다.

셋째 악장은 주제와 이어지는 변주들로 구성된다. 목관은 현악기의 그림자처럼만 움직이지 않고, 피아노의 빠른 음형과 네 성부의 대위적 짜임 사이에서 재료를 따로 부각한다. 변주는 매번 같은 주제를 더 화려하게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다. 리듬의 분할, 성부의 수, 독주와 관현악이 맞물리는 방식이 바뀌면서, 처음의 다단조 주제가 여러 각도에서 다시 들린다. 코다는 그 흐름을 다단조의 종결로 모은다.

표기가 가리키는 연주 문제

오늘날 통용되는 Allegro–Larghetto–Allegretto라는 세 속도 표기는 편리한 길잡이이지만 , 현존 자필
총보에서 그 표기 자체는 모두 모차르트의 필체가 아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 악장의 제목을 ‘[Larghetto]’, ‘[Allegretto]’처럼 대괄호로 적는 자료도 있다. 이 사실은 느리게 혹은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표기의 작성 시점과 작품의 음악적 형식은 별개의 문제다.

독주 악기의 원래 표기는 ‘Cembalo’다. 모차르트가 이 말을 쓸 때에는 오늘날의 현대 피아노 하나만을 뜻하지 않았고, 여러 건반 악기가 공존하던 시대의 넓은 명칭이었다 . 현대 피아노와 포르테피아노의 지속과 명료도 차이는 이 작품을 연주할 때 실제 음색과 균형을 바꾼다. 자필 총보에 남은 약식 표기와 수정은 그 선택의 출발점이지 , 한 가지 음색이나 한 가지 장식법을 명령하는 규칙은 아니다.

카덴차가 만드는 다른 해답

K. 491에는 모차르트가 쓴 완성된 카덴차가 전하지 않는다. 긴 카덴차와 페르마타 부근에서 쓰는 짧은
연결구인 Eingang은 길이와 기능이 다르다. 두 종류의 독주 삽입부는 모두 음악의 흐름을 잠시 이어 가지만, 맡는 역할은 같지 않다. Henle 판에 실린 András Schiff의 카덴차와 리드인은 그래서 모차르트의 유실된
원문이 아니라, 판본이 출처를 밝히고 제공하는 하나의 해법이다.

해법은 연주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Piotr Anderszewski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쓴 K. 491 카덴차가
알레그로의 주제 재료를 압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덴차를 작품 밖의 기교 과시가 아니라 앞선 재료를 다시 묻는 자리로 본 사례다. 2008년 Imogen Cooper의 음반은 첫 악장에 Alfred Brendel의 카덴차를 사용한다고 명시한다. 반대로 Robert Levin과 Academy of Ancient Music, Richard Egarr의 2023년 녹음은
포르테피아노로 연주하면서 카덴차와 연결구를 즉흥으로 처리했다. 이 선택들은 모차르트가 1786년에 무엇을 연주했는지 복원한 증거가 아니라, 자필 카덴차가 없는 작품에 오늘의 연주자가 선택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다.

세 악장을 잇는 대화의 방식

이 협주곡의 세 악장은 독주와 관현악의 관계를 서로 다르게 조직하면서 한 곡의 흐름을 만든다. 첫 악장에서는 관현악 제시 뒤 피아노가 새 선율을 제시한다. 둘째 악장에서는 돌아오는 선율이 피아노 장식과 목관의 음색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악장은 하나의 주제가 변주될 때 독주와 관현악의 관계도 함께 바뀌는 과정을 드러낸다.

관현악은 세 악장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첫 악장에서는 독주자가 내놓은 재료를 받아 제시를 넓히고, 둘째 악장에서는 반복 주제의 음색을 바꾸며, 셋째 악장에서는 변주마다 성부의 밀도와 리듬을 다시 짠다. K. 491의 다단조는 이런 변화가 놓이는 조성의 중심이고, 작품의 내용은 조성과 함께 달라지는 독주 ·관현악의 관계에서 구체화된다 .

주요 자료

국제 모차르테움 재단 쾨헬 목록: KV 491: 작품 목록의 날짜, 편성, 자필 총보와 1800년 초판,
피아노 성부 수정의 개요를 확인했다.

Mozart Documents: 1786년 4월 7일 기록: Wiener Zeitung 원문과 주석을 통해 당시 음악회의 장소, 프로그램 부재, 잘못 전해진 초연설을 확인했다.
Henle HN 787 비평 주석: 자필 총보의 물리적 상태, 속도 표기의 필체, 수정 단계와 사후 인쇄본의 자료적 한계를 확인했다.
Los Angeles Philharmonic: K. 491 해설: 세 악장의 구조적 출발점, 목관의 역할, 현대 연주 시간과 편성을 참고했다.
Henle HN 787: Ernst Herttrich의 편집과 András Schiff의 피아노 감축, 운지, 카덴차 ·리드인 수록을 확인했다.
Academy of Ancient Music AAM041 북클릿: Robert Levin과 Richard Egarr의 2023년 녹음, 포르테피아노 , 즉흥 카덴차와 연결구의 선택을 확인했다.
Avie: Imogen Cooper의 K. 491 음반: 2008년 음반의 연주자, 악장별 시간, Alfred Brendel
카덴차 표기를 확인했다.
Piotr Anderszewski 인터뷰: 자신이 쓴 K. 491 카덴차에 관한 연주자의 설명을 확인했다.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4:02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4:02 UTC by 안준영